

TV드라마와 도시문화콘텐츠

—[도쿄 러브스토리]와 [도쿄 센터멘탈]을 중심으로—

崔泰和*

(e-mail : saikun25@gmail.com)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3. [도쿄 센터멘탈]의 도쿄 |
| 2. [도쿄 러브 스토리]의 도쿄 | 3.1.도쿄의 중심으로 돌아온 시타마치 |
| 2.1. "도쿄의 한가운데"로 온 이주민 | 3.2.세련되었고 명정한 공간, 도쿄 |
| 2.2. 세련된 모호한 공간, 도쿄 | 4. 나가며 |

키워드 : 東京ラブストーリー(Tokyo Love story), 東京センチメンタル(Tokyo Sentimental), 文化コンテンツ(Culture Contents), 東京(Tokyo), 江戸っ子(Edokko), アーバンラブストーリー(Urban Love story)

1. 들어가며

서울시는 2017년부터 "서울스토리 드라마 극본 공모전"을 통해 서울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제작을 시도하고 있다¹⁾. "드라마를 관광 상품화해 서울만의 고유한 풍경과 감성을 해외에 알려 관광객 유치를 끌어내겠다"라는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의 인터뷰 기사는 드라마 제작의 목적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²⁾.

* 군산대학교 강사, 일본문학문화

1) opengov.seoul.go.kr/mediahub/15349819 관리번호D0000033695019, 서울특별시정보소통광장, 내 손안에 서울, 2018.05.29.(검색일: 2019.03.10.)

드라마를 통해 도시공간을 문화콘텐츠화 하려는 움직임은 한국만은 아닌 듯하다. 일본에서도 도쿄의 곳곳을 돌며 그 동네의 음식을 소개하는 드라마인 [고독한 미식가(孤獨のグルメ)](2012~현재)가 있다. 이 드라마는 시즌7까지 방영되고 있는 롱런드라마로, 도시공간의 문화콘텐츠화에 성공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쿄는 [고독한 미식가] 이전에도 수많은 드라마의 배경으로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도쿄 러브스토리(東京ラブストーリー)]는 1990년대의 트렌디드라마로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까지 번졌을 만큼 커다란 인기를 얻었으며,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드라마다. 또한 [도쿄 러브스토리]로부터 25년이 지난 후, 또 다시 도쿄를 제목에 걸고 방영된 [도쿄 센티멘탈(東京センチメンタル)]은 공간배경의 위상이 스토리와 대등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어반 러브스토리(urban love story)’ 장르의 대표적 작품으로 주목할 만하다³⁾. 그런데 [도쿄 러브스토리]의 주인공들은 당시 20대 중반으로 2019년 현재로 보아 50대 중반의 세대이다. [도쿄 센티멘탈]은 [도쿄 러브스토리] 세대와 동세대인 50대 중반세대를 주인공으로 삼은 드라마이기도 하다.

본고는 도쿄를 배경을 하는 대표적인 드라마이자 같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도쿄 러브스토리]와 [도쿄 센티멘탈]을 비교고찰하여, 도쿄라는 도시공간이 어떻게 묘사되고 소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시문화콘텐츠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쿄 러브스토리]의 도쿄

2.1. “도쿄의 한가운데”로 온 이주민

사이몬 후미(柴門ふみ)의 『도쿄 러브스토리』는 아카나 리카(赤名リカ)와 나가오 칸지(永尾完治)의 만남과 이별을 그린 작품으로 『빅코믹스(ビッグコミックス)』

2) www.hani.co.kr/arti/society/area/858053. 한겨레 신문(2018-08-17) 김미향 기자 「서울시, 시민이 쓴 극본으로 ‘웹드라마’ 제작 수출」(검색일: 2019.03.10.)

3) 최태화(2018) 「‘어반 러브스토리’로서의 [도쿄 센티멘탈]과 ‘닌조분」 『용봉인문논총』 53, 인문학연구소, pp.229-252.

ミックス)』(小學館)에 1989년1월9일호부터 1990년10월8일호까지 연재되어 큰 인기를 얻는다. 이를 원작으로 사카모토 유지(坂本裕二)가 각본을 쓴 TV드라마 [도쿄 러브스토리]는 후지티비(フジテレビ)계열 방송국에서 1991년1월7일부터 3월18일까지 전11화가 월요일 9시에 방송된다.

아카나 리카와 칸치(カンチ)라는 별명으로 더욱 유명한 나가오 칸지의 사랑을 그린 [도쿄 러브스토리]는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다. [도쿄 러브스토리]의 평균시청률은 23.9%, 최고시청률은 32.3%였다⁴⁾. 드라마가 방영되던 당시, "월요일 밤거리에 OL(사무직 여성)의 모습이 사라졌다"라는 [도쿄 러브스토리]의 인기를 묘사하는 평판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화제작이었다⁵⁾.

드라마의 줄거리는 에히메(愛媛)현에서 상경하여 도쿄의 회사에 중도입사한 나가오 칸지와 나가오의 직장동료인 아카나 리카, 나가오의 고교동창인 유치원 선생인 세키구치 사토미(關口さとみ), 같은 고교동창이자 의대생인 미카미 켄이치(三上健一), 미카미의 의대동급생인 나가사키 나오코(長崎尚子)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남2여3의 삼각관계와 러브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서도 작가 사이몬은 아카나 리카를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⁶⁾, 드라마의 연출가였던 나가야마 코조(永山耕三)도 "아카네 리카를 주역으로 하였습니다. (칸치와 결혼한) 사토미를 주인공으로 한 해피엔딩이 아닌, (사랑의) 패자인 리카의 스토리. 「버림받은 여인의 미학」을 찍고 싶었던 겁니다"라고 리카를 주인공으로 언급하고 있다⁷⁾. 아카나 리카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살다온 귀국자녀로 나가오를 비롯한 다른 에히메 출신들의 인물들과는 대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도쿄 러브스토리]에는 도쿄가 고향인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 수 있다.

4) 富山由紀子(2014)「柴門ふみ『東京ラブストーリー』論:對幻想を超克するヒロイン」『早稲田現代文芸研究』4, 早稲田文芸・ジャーナリズム學會, pp.75-88.

5) 中野 翠, 麻生圭子, 横森理香(1991)「『東京ラブストーリー』大論争」『文芸春秋』69(8), 文芸春秋, p392-403.

6) 柴門ふみ(2016)「東京ラブストーリーの二十五年後」, 『文芸春秋』94(6), 文芸春秋, pp.84-86.

7) 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61202_471559. NEWSポストセブン 2016.12.02. (검색일: 2019.03.10.)

[도쿄 러브스토리]는 도쿄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의 러브스토리인 것이다. 도쿄가 이주민의 도시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쿄 러브스토리]의 첫 장면은 도쿄의 관문인 하네다 공항에서 시작한다. 이주민인 나가오 칸치를 맞이하는 것은 나가오보다 조금 빨리, 그러나 거리상으로는 훨씬 먼 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아카나리카였다. 다음은 건설 중이던 레인보우 브릿지를 배경으로 방과제 위에 올라선 칸치(리카가 멋대로 붙인 나가오 칸치의 별명)와 리카가 나누는 대화이다.

리카 왜 그래? 목소리에 힘이 없잖아.

칸치 그래요?

리카 8월 31일의 초등학교 같아. 도쿄에 싫은 거라도 있는거야?

칸치 아니 뭐. 싫다기보다는 좀 불안한 건가 싶어요.

리카 어째서?

칸치 그거야 역시 불안하죠. 에히메에서 혼자 나와서 도쿄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리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힘이 나는 거잖아.

칸치 그런 거예요?

리카 괜찮아. 웃어봐.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중략)

리카 힘내!

칸치 아 이제 1학기 종업식 날의 초등학교 같아요!

홀로 지내야 하는 도쿄는 칸치에게 있어서 개학을 앞둔 "8월 31일의 초등학교"처럼 '불안'한 공간이다. 이러한 칸치를 "1학기 종업식 날의 초등학교"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준 것이 리카의 "무슨 일어날지 모르니까 힘이 나는 거"라는 격려였다. [도쿄 러브스토리]의 도쿄, 1990년대의 도쿄는 아직 건설 중인, 미완성의 도시였으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지인 젊은 20대의 공간으로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쿄 러브스토리]는 '트렌디드라마'의 금자탑으로 불린다⁸⁾. 트렌디드라마는 일본의 버블기에 제작된 드라마들을 총칭하는 단어로 세련된 도시인의 생활과 연애가 묘사되는 드라마가 많으며, 등장인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소위 'F1층'으로 불리는 소비의욕이 왕성하고 트렌드에도 민감한 20대에서 34세의 여성층에 어필하는 드라마다⁹⁾. 트렌디드라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다¹⁰⁾.

그 드라마(트렌디드라마-필자 주)에는 밤의 도쿄가 나온다. 그 드라마에는 생활감이 없다. 그 드라마에는 멋진 남녀가 등장한다. 그 드라마에는 "지금"의 냄새가 난다. 그 드라마에는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라는 희망이 있다. 그렇다. 그때의 트렌디드라마는 우리들의 꿈과 현실의 갭을 위화감 없이 메꾸어주는 시물레이션드라마였다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지금의 냄새"라는 것은 트렌디드라마가 당시의 유행을 민감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유행은 실재하는 것이 아닌 그렇게 되고 싶은, 혹은 가지고 싶어 하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생활감이 없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즉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라고 하는 희망"의 구체화된 형태가 트렌디드라마인 것이다.

2.2. 세련된 모호한 공간, 도쿄

[도쿄 러브스토리]에서 "희망"이 투사되고 있는 공간인 도쿄에 대해 나가야 마는 다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¹⁾.

8) ワイド特集(2018) 「『織田裕二』『鈴木保奈美』共演より話題沸騰の『東京ラブストーリー』」 『週刊新潮』 63(36), 新潮社, pp.42-43.

9) 富山由紀子(2014) 「柴門ふみ『東京ラブストーリー』論:對幻想を超克するヒロイン」 『早稲田現代文芸研究』 4, 早稲田文芸・ジャーナリズム學會, pp.75-88.

10) ドラマリサーチネットワーク(1993) 『素敵なドラマが教えてくれたー「東京ラブストーリー」から「誰にも言えない」まで』, ワニブックス, p.45.

11) 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61202_471559. NEWSポストセブン 2016.12.02. (검색일: 2019.03.10.)

무대는 1990년 전반의 도쿄였습니다. 그 때의 도쿄는 멋있었어요(かっこよかったですよ). 시부야, 아오야마(青山), 나카메구로(中目黒), 에비스(惠比壽) 근처에서 촬영했습니다. 오모테산도(表参道)에서 미카미와 사토미가 키스를 하고, 나카메구로의 회사에서 칸치와 리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도쿄의 한가운데서 촬영하였습니다.

나가야마의 설명대로 "멋있는 도쿄"는 드라마 오프닝에 주제가와 함께 보여지는 도쿄도청, 도쿄타워 등으로 대표되는 고층빌딩이 즐비한 곳이다. 그런데 도쿄타워 등이 등장하는 한 두 장면을 제외하고서는 도쿄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속의 많은 장면들이 빌딩숲이 아닌 "도쿄 한가운데"에 있는 여러 공원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도쿄의 젊은이들의 약속장소로 공원이 많이 사용되었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 예를 들어 리카가 칸치에게 "24시간 좋아한다고 말해줘"(5화)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긴 시부야의 도미가타니공원(富ヶ谷公園), 10화에서 미카미가 칸치에게 사토미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메구로(目黒)의 사이고야마공원(西郷山公園) 등이 그러하다.



그림 1 좌: 도미가타니공원(5화) 우:사이고야마공원(10화)

12)柴門ふみ(1991)「「東京ラブストーリー」大論争」『文芸春秋』69(8), 文芸春秋, p394.

그러나 이러한 공원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은 열성적인 팬들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화면 속에 보이는 공원들은 일본의 어디에도 있을 법한 평범한 공원들로 그곳이 "도쿄의 한가운데"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해주지 않는다.

공원과 함께, 트렌드드라마에서 자주 묘사된다고 하는 "밤의 도쿄"도 [도쿄 러브스토리]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밤의 도쿄" 장면 역시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 클로즈업 구도와 아웃포커싱된 배경으로 도쿄의 밤거리를 흐릿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초점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보케(ボケ)를 만들어내는 아웃포커싱 기법은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빛망울을 통해 인물을 더욱 강조시켜주나, 배경의 구체성을 지워버려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효과도 함께 가져오게 된다.



그림 2 좌:밤의 도쿄(10화) 우:밤의 도쿄(2화)

"멋있는 도쿄"는 세련되었으나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유사현실(疑似現實)의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드라마 후반부를 장식하는 에히메를 배경으로 하는 칸치와 리카의 장면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리카를 찾아서 자신의 고향인 에히메에 도착한 칸치의 뒤를 쫓는 카메라는 에히메의 공간에 대한 정보도 구체적인 장소가 확실히 보여지도록 팬포커싱되어,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슛세키지(出石寺)라고 쓰여있는 버스의 표지판을 보여줌으로써 마

쓰야마 공항에서 내린 칸치가 버스에서 내린 곳은 고향인 오즈(大洲)시였음을 알려주는 장면, 혼마치2초메(本町二丁目)라고 선명히 써있는 간판을 통해 구체적인 거리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장면, 그 거리에 실재하는 가게의 간판들이 전부 읽을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팬포커싱으로 잡혀있는 장면 등은 공간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의도가 확인되는 곳이라 할 것이다.



그림 3 좌:숫세키지행 버스(10화) 우 : 혼마치2초메(10화)

결과적으로 이런 의도는 시청자에게도 전달되어져, 묘사된 공간에 대한 흥미는 드라마가 끝난 지 25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역의 명소로 홍보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며, 공간의 문화콘텐츠화의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좌:바이신지역(梅津寺驛) 홍보간판 우:에히메 오즈시 관광 가이드맵

드라마 속의 에히메는 시청자에게 찾아가고 싶고 찾아갈 수 있는 실존하는 공간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작품의 주된 공간인 도쿄는 시청자들에게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3. [도쿄 센티멘탈]의 도쿄

3.1. 도쿄의 중심으로 돌아온 시타마치

2014년 12월, 텔레비도쿄(テレビ東京)는 2부작 연말특별드라마(이후 SP판), [도쿄 센티멘탈-야나카의 사랑(東京センチメンタル-谷中の戀)](1부), [도쿄 센티멘탈-후카가와와 사랑(深川の戀)](2부)를 방영한다.

[도쿄 센티멘탈]은 2016년 1월부터 정규편성인 분기드라마(クールドラマ)로 확장 방영된다. 이후로도 2017년 1월 3일에 「도쿄 센티멘탈SP-센주의 사랑(千住の戀)」, 2018년 3월 31일에 「도쿄 센티멘탈SP-오차노미즈의 사랑(御茶ノ水の戀)」이 특별드라마로 편성된다.

주인공인 구루리 타쿠조(久留里卓三)는 55세로 아사쿠사(淺草)의 화과자점, 구루리야(くるりや)의 3대째 주인이자 도쿄 토박이이다. [도쿄 센티멘탈]은 주인공 타쿠조와 같은 50대를 주요 시청자층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도쿄 러브스토리]와 같은 트렌디드라마의 주요 시청자층이었으며 1990년대에 청년기를 보낸 세대이다. 다시 말해 1990년의 칸치와 2018년의 타쿠조는 동세대의 인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도쿄 센티멘탈]의 도쿄는, 도쿄스카이트리를 중심으로 스미다가와(隅田川)를 축으로 하는 도쿄의 동쪽을 중심으로 드라마를 전개시킨다. 이는 SP판의 오프닝(OP)에서 도쿄스카이트리를 비추고 이어서 스미다가와를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SP[도쿄 센티멘탈]오프닝

특히 분기드라마의 오프닝에서는 도쿄타워를 비춘 다음 도쿄스카이트리를 보여주고, 뒤이어 스미다가와를 보여주고 있는 시퀀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의도가 더욱 명확하다.



그림 6 분기드라마[도쿄 센티멘탈]오프닝

드라마의 오프닝뿐만 아니라, 실제로 드라마의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 역시 스미다가와를 축으로 하는 도쿄의 동쪽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특별드라마의 공간이었던 야나카, 후카가와를 비롯하여, 분기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도쿄 역시 시바마타(柴又), 오시아게(押上), 료고쿠(兩國), 우에노(上野) 등 에도시대와 근대화 초기시대의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도쿄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국토교통성의 보고서 「도쿄스카이트리에 관한 국토교통성 관계시책에 관해서」(2012.05.21)에는, 도쿄스카이트리를 통해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주변의 역사적 관광자원을 정비하여 관광거점화 하도록 하겠다는 스미다 중앙지

구(すみだ中央地區) 도시재생계획이 기재되어있다¹³⁾.

에도말기, 오시아게 주변은 무사들의 별장과 음식점들로 한적한 교외 지역이었으나 갑작스런 영험으로 유명해지는 소위 하야리가미(流行神)의 영향 등으로 인해 행락의 명소가 되어, 점차 조닌(町人)들의 거리인 시타마치(下町)로 편입되어간다. 보고서가 말하고 있는 오시아게 주변의 역사적 관광자원이란 당시의 하야리가미였던 가메이도 텐만구(龜戸天滿宮)를 비롯한 스미다가와 칠복신(隅田川七福神), 우시지마(牛嶋) 신사, 미메구리(三圃) 신사와 같은 사사(寺社)등을 지칭한다¹⁴⁾.

이후 에도가 도쿄로 바뀌고 근대화를 겪으며 오시아게 주변이 공장부지 등으로 이용되면서 낙후지역으로 남게 되어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진 공간이 되었으나¹⁵⁾, 도쿄스카이트리 완공과 함께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도쿄스카이트리는 오에도 타워(大江戸タワー)로 불릴 수도 있었다. 오에도 타워는 2012년 5월에 실시된 명칭공모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명칭이었기 때문이다¹⁶⁾. 요컨대 오시아게 주변은 여전히 에도의 시타마치를 떠올리게 되는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3.2 세련되었고 명징한 공간, 도쿄

[도쿄 센티멘탈]의 홈페이지에는 드라마의 볼거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⁷⁾.

13) www.mlit.go.jp/common/000211727.pdf. 国土交通省(2012.05.21) 「東京スカイツリーに係る国土交通省関係施策について」 (검색일: 2019.03.10.)

14) 최태화(2017) 「에도의 유행신(流行神)과 서민의 종교경제활동－『우메노하루(梅之春)』를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39,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227-246.

15) <https://www.lrex.or.jp/upload/kaihou/151/131734535464901.pdf>. 一般社団法人 全日本土地區畫整理士會.(검색일: 2019.03.10.)

16) www.tokyo-skytree.jp/press/pdf/080610.pdf. 新東京タワー株式會社, 『新タワーネーミング全國投票』 結果概要. (검색일: 2019.03.10.)

17) https://www.tv-tokyo.co.jp/tokyo_sentimental/smp/news/(검색일: 2019.03.10.)

개발이 진행되는 도쿄라는 거리 속에서도 옛날과 다름없는 도쿄 시타마치(東京下町)가 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그려지는 아련한 사랑. (중략) 시타마치에 있는 실재하는 가게가 드라마의 무대가 되는 것도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타쿠조가 안내해주는 명소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시타마치의 매력을 재발견 할 수 있고, 살짝 슬프고 노스텔직한 기분이 들 것만 같은 어른들의 사랑이야기를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도의 시타마치는 대중문화의 중심이었으며, 새로운 유행과 문화가 끊임없이 창조되던 공간이었다. 옛 시타마치의 공간의 현재를 "도쿄 시타마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에도시대의 유산과 현대의 모던함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와 함께 [도쿄 센터멘탈]에 있어서의 도쿄의 중심은 시부야, 메구로가 아닌 에도시대로부터 이어지는 오시아게, 아사쿠사, 야나카 등의 지역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SP판 [도쿄 센터멘탈]의 오프닝에는 "도쿄, 여기에는 많은 얼굴이 있다. 걸 어보면 그걸 잘 알 수 있다. 바람, 냄새, 소리, 맛, 술, 그리고 여자, 최고의 동네 산책, 이것은 도쿄와의 만남의 기록이다"라는 타쿠조의 내레이션이 삽입되어 있다. 이는 [도쿄 센터멘탈]이 타쿠조의 러브스토리임과 동시에 도쿄의 공간, 특히 "도쿄시타마치"를 보여주기 위한 드라마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도쿄시타마치"의 볼거리 중 하나인 "시타마치에 있는 실재하는 가게"들은 오랜 역사를 가진 시니세(老舗)가 많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SP판 [도쿄 센터멘탈] 제1화에 소개되는 야나카의 오래된 카페인 '가야바커피'는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꽤나 세련되어졌는데 리모델링을 했나봐요"라고 언급되고 있다. 시타마치의 시니세들은 옛 시대의 노스텔지어를 자극함과 동시에 현재에도 통용될 수 있는 대단히 세련된 모습을 동시에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 타쿠조는 드라마의 각 화에서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도쿄 토박이라는 점을 살려 보통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도쿄의 옛 사찰이나 유적, 유명한 가게 등의 유래 및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이와 동시에 카메라는 도시의 멋지고 세련된 공간을 훑어간다. 이러한 시청각 정보는 그대로 시청자에게 전달되어 [도쿄 센티멘탈]은 일종의 도쿄안내서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드라마에서 현실에 실재하는 명소와 가게를 공간적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은 홍보가 주된 목적이나 이를 통해 드라마의 픽진성(verisimilitude)과 리얼리티 또한 강화되는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이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의 스토리와 시공간 배경의 위상이 대등하게 구성되어 있는 장르의 문학을 ‘어반 러브스토리’로 정의한 바 있다¹⁸⁾.

‘어반 러브스토리’인 [도쿄 센티멘탈]은 도시문화콘텐츠라는 시각에서 성공적이라 할 것이다.

4. 나가며

[도쿄 러브스토리]의 도쿄는 고향에서 유리(流離)된 젊은이들의 도시로 그려진다. 도쿄는 이주민들이 정착하여 꿈과 희망을 좇아야 할 식민지여야 했다. 새롭고 도전적이며 개척해야 할 공간임을 강조하기 위해, 도쿄는 유행의 침단을 달리는 세련된 곳인 동시에 아웃포커싱된 모호한 공간으로 그려진다. 전통과 문화유산이 분명히 존재하던 시타마치의 공간은 전혀 모호해질 수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드라마의 배경에서 축출되어야 했다. 따라서 “도쿄의 한가운데”는 에도의 흔적이 보이질 않는 시부야 등의 공간이어야 했던 것이다.

25년이 지난 후, 도쿄스카이트리로 상징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대중문화

18) 최태화(2018) 「‘어반 러브스토리’로서의 [도쿄 센티멘탈]과 닌조본」 『용봉인문논총』 53, 인문학연구소, pp.229-252.

의 중심에서 사라졌던 시타마치가 다시 이목을 끌게 된다. 그러자 에도 시타마치의 주인이었던 에돗코도 함께 돌아오게 된다. 에돗코는 에도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지나는 좁은 의미의 향토의식이 아니라, 지방에서 에도로 유입되어 공생하는 잡다한 동류의 사람들이 이 도시를 가장 좋은 곳이라고 느끼는 일종의 연대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¹⁹⁾. 에도 역시 처음에는 각 지방에서 유입된 이주민들의 도시였던 것이다.

25년 전의 칸치처럼 불안감을 갖고 도쿄로 들어온 이주민들은, 25년간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도전의 공간에서 익숙해졌으며, 이 도시를 가장 좋은 곳으로 여기며 도쿄에 동화되어, 점차 에돗코가 되어 갔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대규모의 이주민이 도쿄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고도성장기에 대량으로 유입된 이주민의 토착화는 고령화사회로 이어지게 된다. [도쿄 센터멘탈]의 주인공인 타쿠조가 55세의 에돗코로 설정된 것은 이러한 흐름의 반영인 것이다.

이러한 타쿠조가 보여주는 세련됨은 에돗코의 미학인 '이키'와 맞닿아 있다. 에로티시즘을 베이스로 하여 유행을 좇는 도시적 세련됨을 의미하는 에도시대 조닌(町人)계급의 일종의 도덕률이자 미의식인 '이키'는 '비타이(媚態)', '이쿠지(意氣地)', '아키라메(諦め)'의 3가지의 징표를 가진다²⁰⁾. 또한 '이키'는 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세련됨도 포함하는 바²¹⁾, 타쿠조가 세련된 공간과 음식을 추구하는 것은 '이키'를 좇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타쿠조가 소비하는 예스러우나 세련된 문화는 현대의 새로운 트렌드인 '뉴트로(New-tro)' 문화와 이어진다. 뉴트로란 새롭다는 의미의 뉴(New)와 복고의 레트로(Retro)가 합성된 말로 복고적인 이미지이나 현대적인 감성을 동시에 갖춘 문화를 의미한다.

복고는 장년층에게는 노스탤지어를 자아내나, 청년세대에게는 참신하고 새로

19) 長島弘明(2009) 『일본문학 속 에도·도쿄 표상 연구』, 제이앤씨, p.77.

20) 최태화(2017) 「광의화된 이키(いき) — 난조본에 묘사된 이키를 중심으로 —」 『일본학보』 111, 한국일본학회, pp.147-165.

21) 한정자(2009) 『일본문학 속 에도·도쿄 표상 연구』, 제이앤씨, p.85.

운 콘텐츠로 다가온다. 같은 옛날 제품과 같으나 내부는 최신의 부품으로 만들어낸 복각제품 등에 열광하는 뉴트로 문화는 일견 오래된 클래식 카메라로 보이거나 실제로는 최고급 최신 디지털 카메라인 라이카 M 카메라를 소지한 타쿠조의 이미지에서도 중첩되고 있다²²⁾.

서울도 도쿄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근대화과 이주민의 급증을 겪었으며 고풍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뉴트로 문화의 유행은 서울에서도 진행 중이다. [도쿄 센터멘탈]에서 시도된 '어반 러브스토리'와 타쿠조의 에스려우나 세련된 도쿄문화를 소개하는 기법은 서울의 도시문화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富山由紀子(2014) 「柴門ふみ『東京ラブストーリー』論:對幻想を超克するヒロイン」 『早稲田現代文芸研究』 4, 早稲田文芸・ジャーナリズム學會, pp.75-88.
- 中野 翠, 麻生圭子, 横森理香(1991) 「『東京ラブストーリー』大論争」 『文芸春秋』 69(8), 文芸春秋, p392-403.
- 柴門ふみ(2016) 「東京ラブストーリーの二十五年後」, 『文芸春秋』 94(6), 文芸春秋, pp.84-86.
- 富山由紀子(2014) 「柴門ふみ『東京ラブストーリー』論:對幻想を超克するヒロイン」 『早稲田現代文芸研究』 4, 早稲田文芸・ジャーナリズム學會, pp.75-88.
- 최태화(2017) 「에도의 유행신(流行神)과 서민의 종교경제활동－『우메노하루(梅之春)』를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39,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227-246.
(DOI : <http://dx.doi.org/10.17314/jjlc.2017..39.012>)
- _____ (2017) 「광의화된 이키(いき)－닌조본에 묘사된 이키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111, 한국일본학회, pp.147-165.
(DOI:<http://dx.doi.org/10.15831/JKSSPE.2017.22.1.111>)
- _____ (2018) 「'어반 러브스토리'로서의 [도쿄 센터멘탈]과 닌조본」 『용봉인문논총』 53, 인문학연구소, pp.229-252.

22) 최태화(2018) 「'어반 러브스토리'로서의 [도쿄 센터멘탈]과 닌조본」 『용봉인문논총』 53, 인문학연구소, p.238.

- 한경자(2009) 『일본문학 속 에도·도쿄 표상 연구』, 제이앤씨, p.85.
長島弘明(2009) 『일본문학 속 에도·도쿄 표상 연구』, 제이앤씨, p.77.
ワイド特集(2018) 「織田裕二」「鈴木保奈美」共演より話題沸騰の『東京ラブストーリー』 『週刊新潮』 63(36), 新潮社, pp.42-43.
ドラマリサーチネットワーク(1993) 『素敵なドラマが教えてくれた—「東京ラブストーリー」から「誰にも言えない」まで』, ワニブックス, p.45.
- opengov.seoul.go.kr/mediahub/15349819 관리번호D0000033695019, 서울특별시정보소통광장, 내 손안에 서울, 2018.05.29.(검색일: 2019.03.10.)
www.hani.co.kr/arti/society/area/858053. 한겨레 신문(2018-08-17) 김미향 기자 「서울시, 시민이 쓴 극본으로 ‘웹드라마’ 제작 수출」(검색일: 2019.03.10.)
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61202_471559. NEWSポストセブン 2016.12.02.(검색일: 2019.03.10.)
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61202_471559. NEWSポストセブン 2016.12.02. (검색일: 2019.03.10.)
_____(1991) 「「東京ラブストーリー」大論争」 『文芸春秋』 69(8), 文芸春秋, p394.
www.mlit.go.jp/common/000211727.pdf. 国土交通省(2012.05.21.) 「東京スカイツリーに係る国土交通省関係施策について」(검색일: 2019.03.10.)
https://www.lrex.or.jp/upload/kaihou/151/131734535464901.pdf. 一般社団法人 全日本土地區畫整理士會.(검색일: 2019.03.10.)
www.tokyo-skytree.jp/press/pdf/080610.pdf. 新東京タワー株式會社, 『新タワーネーミング全國投票』 結果概要. (검색일: 2019.03.10.)
https://www.tv-tokyo.co.jp/tokyo_sentimental/smp/news/(검색일: 2019.03.10.)

논문 투고 일자 : 2019. 03. 30.

논문 심사 일자 : 2019. 05. 03.

게재 확정 일자 : 2019. 05. 07.

<要旨>

テレビドラマと都市文化コンテンツ -
「東京ラブストーリー」と「東京センチメンタル」を中心に

崔泰和

[東京ラブストーリー]と[東京センチメンタル]は、放送された時代こそ25年も隔たれているが、現在50代になった同じ世代の視聴者にアピールするドラマである。洗練されていることは[東京ラブストーリー]の東京と同じだが、[東京センチメンタル]の東京は、江戸のいきも共存している安定された故郷のイメージがアピールされる。また、東京の洗練された空間を宣伝する目的もかねているドラマなので、東京は鮮明に映し出されており、東京の文化コンテンツが視聴者に効果的に伝達されている。ストーリーとともに都市空間情報提供も重視する「アーバンラブストーリー」ドラマといえよう。その主人公である卓三は、昔の江戸も現代の東京も同時に楽しんでいる。卓三を通じて見せられる東京下町の美しさや洗練さは、現在韓国で流行り出している「ニュートロ (New-tro) 」文化に繋がる。[東京センチメンタル]で試みられた「アーバンラブストーリー」と卓三を通じて東京の文化を紹介する手法は、ソウルの都市文化コンテンツを宣伝できる効果的な方法の一つになると考えられる。

Television dramas and urban cultural contents
- Focusing on [Tokyo Love Story] and [Tokyo Sentimental]

Choi, Tae-Wha

[Tokyo Love Story] and [Tokyo Sentimental] are broadcast 25 years different from the times. However, these dramas appeal to viewers of the same generation in Japan who are currently in their mid-50s. [Tokyo Love Story] and [Tokyo Sentimental] are lovestories of an immigrant and Tokyo native, respectively. Although Tokyo is a city of fashion, the aesthetics of the Edo period are also appealing as a coexisting stable space. To convey this to viewers, in the dramas, Tokyo is clearly shown through pan focusing. [Tokyo Sentimental] is an “urban love story” that emphasizes not only contents but also information about urban space. Takujo, the protagonist, enjoys the aesthetics of Edo and the sophistication of modern Tokyo at the same time. The aesthetics of Tokyo Shitamachi through Takuzo lead to the culture of “New-tro,” which is currently popular in Korea. Therefore, the technique of introducing the urban love story and the stylish Tokyo culture of Takujo, attempted in [Tokyo Sentimental], could be considered an effective way for promoting the urban cultural contents of Seoul.